신입 웹퍼블리셔 이진주입니다



이진주 여 1989년, 33세

휴대폰 010-3130-3604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Email ljjshlove@naver.com

학력 대구가톨릭대학교 시각디자인과 대학(4년) 졸업 경력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퇴사 총 2년

인턴·대외활동 / 해외경험 자격증 / 어학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학력

2012 졸업 대구가톨릭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경력

2018. 03 ~ 2020. 03 2년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디자인팀 사원

카드뉴스 제작/ 작업물 게시 및 SNS 관리/ 디자인 거래처 관리

연봉 2,400만원

교육

2020. 09 ~ 2021. 03 **스마트기기 UI/ UX(웹디자인, 웹퍼블리셔)** 이젠아카데미

[Adobe Photoshop Adobe illustrator]

- -기본적인 툴 다루기 및 이미지 편집/ 실습
- -일러스트 로고 및 캐릭터 디자인

[HTML/ CSS3]

- HTML/ CSS3 정의 및 기본 마크업
- 웹 표준에 맞춘 시맨틱 마크업 작성
- 반복 마크업 작업과 실습
- 포트폴리오 구성 및 제작

[JavaScript/ jQuery]

- 자바스크립트 소스 분석 및 활용
- 미디어 쿼리 활용 다양한 디자인 구현
- CSS 이용 애니메이션 구현
- 적정 기능 구현 위한 반복 작업 및 실습
- jQuery 활용 다양한 플러그인/ 라이브러리 이해 및 구현

[html, css]

- 웹 사이트 기본 구조
- 시멘틱 마크업
- float, flex, grid 이해
- 접근성준수 코딩
- 다양한 종류의 사이트 분석 및 크론 코딩
- 실무psd 시안을 통한 퍼블리싱
- 제플린,xd,피그마를 통한 퍼블리싱
- 크로스브라우징 처리

[JavaScript]

- 연산자와 기본 문법
- 함수를 활용한 소스 정리
- 플러그인의 응용 및 활용

자기소개서

성장 과정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없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 제 그림을 눈 여겨 보시던 선생님께서 방과 후 미술부 활동을 권유해 주셨고, 부 활동을 통한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 미술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빈 도화자에 스케치를 하고 그 공간을 여러 고민들 속에서 채워 나가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일련의 괴정들은 흥미로웠고 즐거웠습니다. 이를 계기로 입시 미술을 거쳐 시각다자인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여러 전공 수업을 들으며 편집다자인에 흥미를 느껴 카드뉴스 및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직무로 회사에 입사하여 약 2년간 다자인토에서 일하였습니다.

다년간의 직무 경험을 통해 하나의 작업물이 완성되기까지 내 의견만이 아닌 동료들과의 의사소통 또한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얻어진 경험들은 동료 상호 간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저 또한 그런 일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강화사렸습니다.

사회적 경험 ≪같이 또 함께≫

디자인 팀에서 일할 당시 디자이너는 선임 한 분과 저를 포함 두 명이였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디자인 작업은 참여업체 신제품 카드뉴스 제작 및 SNS 홍보, 제품 브로셔 및 상세 페이지 제작 등으로 다양했고, 이러한 업무들을 시간 내 진행하려면 업무의 분업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 저는 카드뉴스와 SNS 게시물 업로드 및 관리를 맡게 되었고 매주 해당 작업 완료 후 SNS에 게시물 업로드를 해야 했습니다. 혼자 작업을 진행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좋은 거 같은데 다른 사람들도 그럴까?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어떻게 보일까?' 이러한 의문에 다른 직무의 동료들에게 작업물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였고 그들의 다양한 시각 속엔 미처 생각지 못한 디테일과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 시각이 내 결과물을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경험이었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 동료들과 상의하고 활발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작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의 폭도 시야도 더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디자인적인 업무 경험과 그 과정 중 타 업무 동료와의 다양한 의사소통 경험은 웹 퍼블리셔란 업무에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성격의 장단점 ≪될 때까지 한다≫

반복된 작업으로 편집 디자인에 대한 매너리즘이 느껴질 쯤 웹 퍼블리셔란 직업을 접하게 되었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여러 정보들을 접할수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강해졌고 바로 국비수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만 다뤄본 저에게 HTML/ CSS3로 시작하는 언어들은 생소한 것이었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했습니다. 생소한 용어들로 인해 한 번에 웹을 구현해 낸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웹 퍼블리셔란 직업은 매력적이었고 수업을 수강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제가 입력한 코드들로 인해 이러한 결과물을 도출된다는 사실이 신기했고 이는 초등학교 시절 여러 고민들 속에 빈 도화지를 채우던 기쁨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반복된 실습 과정 속에 디자인 시안 작업부터 마크업 후 구현까지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또 다른 도전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씩 완성되어가는 포트폴리오들을 보면서 한 단계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배우는 매 과정들은 순탄치만은 않았고 원하는 대로 구현되지 않을 땐 여러 날을 속상함과 답답함 속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힘든 만큼 해결의 짜릿함은 컸기에 관련 자료 수집과 이전 수업의 반복학습으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그것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었고 문제해결 과정들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집중력과 진취적인 기질이 웹 퍼블리셔란 직무와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신뢰받을 수 있는 일원이 되자»

실무에서 디자이너로 업무 중 기존 웹페이지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싶은 갈증을 수차례 느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전 포토 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하나의 페이지를 단순 디자인하는 작업 외에는 가능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은 많았으나 답답함만이 있었고 이런 갈증 속에 웹 사이트라는 하나의 공간 전체를 직접 디자인하고 구현하고 싶어졌습니다.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퇴근 후 짧게 배우는 건 온전한 제 기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퇴사 후 교육기관을 통해 장기 수업을 신청하여 수강들 듣게 되었습니다. 코딩을 배우는 과정 중 작은 숫자 하나로 오류가 발생하고 이런 오류를 해결하는데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저의 기술을 활용하며 원하는 디자인을 직접 만들고 제작한 디자인을 웹으로 구현하는 작업 하나하나에 대해 만족도는 여태 작업한 결과물에 비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웹 사이트라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선 각각의 부분이 아닌 전체를 기획하고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가 아닌 저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웹 퍼블리셔라는 직무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루고 싶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실무를 진행하며 클라이언트들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매번 디자인 시안을 수정, 보완, 마무리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웹 사이트라는 하나의 완성체를 만들기 위해선 웹 퍼블리싱 실력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디자이너, 퍼블리셔, 개발자 등 그 과정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서의 소통 경험은 웹 퍼블리셔란 직무에서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 생각합니다. 실무 경험에서 익힌 나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조직 안에서 혼자가 아닌 함께, 그리고 조직과 같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기존의 디자인 노하우와 새롭게 익힌 코딩 능력을 접목시켜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최적화된 사이트를 구현코자 합니다. 항상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고 게을리 하지 않고 튼튼한 뼈대를 다져 '신뢰'받을 수 있고 '실력'을 인정받는 조직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웹 퍼블리셔로서 업무 경험이나 스펙은 없습니다. 당장은 es6문법의 스크립트나 여러 라이브러리들을 다루는데 능숙하진 않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스터디와 유료강의를 통해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노력할 것입니다. 퍼블리셔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JavaScript(es6)를 집중적으로 익혀 react, vue, gsap, swiper등 플러그인과 라이브러리의 원리를 이해하고 더나아가 프레임워크까지 심도 있게 공부해 어떠한 프로젝트라도 해결할 수 있는 완성형 인재가 되겠습니다. 잘 듣고 잘 메모하여 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좀 더 많은 노하우를 쌓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여러 고민 속에 빈 도화지를 채워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듯 앞으로의 실무 경험들과 수많은 고민들을 통해 저만의 노하우와 업무 능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참여한 프로젝트와 작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과정 중 얻게 될 여러 지식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지'와 '끈기', 늘 함께한 안전하고 믿음직스러운 제 벗입니다. 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시작을 했다면 항상 끝을 봐야합니다. '최고가 되어보자'라는 포부. 훗날의 일이겠지만 호랑이의 눈으로 목표를 직시하고 소의 걸음으로 한 발한 발 내딛다보면 웹 퍼블리셔라는 분야에서 정점을 찍게 되는 날은 반드시 오리라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희망근무조건

고용형태	정규직
희망근무지	서울전지역
희망연봉	면접 후 결정
지원분야	직무 HTML·퍼블리싱·UI개발 > 웹 접근성, 웹 퍼블리셔, 웹 표준, 자바스크립트

위의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이진주